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중요성 인식과 핵심감사사항 가독성 Auditor's Importance of Quality Control and Key Audit Matters Readability*

윤용석(주저자) · 김현아(교신저자)

Yongsuk Yun(First Author) · Hyun Ah Kim(Corresponding Author)

한남대학교 회계학과 조교수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Hannam University(hwantasi@hnu.kr)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Industrial Management,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 Education
(kukolo@koreatech.ac.kr)

본 연구는 2018년 감사보고서 체계 개편이후 정보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해당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는 원인을 가독성 측면에서 확인한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감사보고서에서 핵심감사사항(KAM)의 가독성이 대형회계법인(Big4)에 대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감사시장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Big4의 KAM 가독성은 non-Big4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질관리 인건비 비중으로 측정된 품질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클수록 가독성이 높고, Big4의 낮은 가독성도 회계법인이 품질관리를 중요하게 고려할수록 완화되었다. 이는 투자자들이 새로운 감사보고서 정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강화가 가독성 향상에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감사보고서 정보의 가치관련성 향상을 위해 회계법인은 KAM 가독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감독당국은 다양한 측면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가독성, 대형회계법인, 품질관리, 감사보고서

This study examines the readability of audit reports to understand why investors do not utilize this information appropriately despite the increased amount of information following the 2018 audit report reform. Specifically, we investigate whether the key audit matters (KAM) readability of the new audit reports is differentiated for Big4 firms and whether the auditors' perceived importance of quality control affects readability. Using a sample of public firms from 2020 to 2022, we find that Big4 audit report readability is lower than non-Big4 audit reports, and that the greater emphasis on quality control, as measured by the proportion of quality control labor costs, is associated with higher readability, and that the lower readability of Big4 audit reports is mitigated by the importance firms place on quality control. This suggests that investors have difficulty understanding new audit report information and that enhanced quality control can help improve readability. Therefore, to increase the value relevance of audit report information, accounting firms should consider KAM readability, and regulators should provide monitoring of their quality control from various aspects.

Keyword: Readability, Big4, Quality Control, Audit Report

최초투고일: 2024. 05. 08 수정일: (1차: 2024. 07. 04) 게재확정일: 2024. 07. 15

* This work was supported by 2024 Hannam University Research Fund.

1. 서론

본 연구는 2018년부터 확장된 감사보고서 정보가 가치관련성을 갖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핵심 감사사항의 가독성 관점에서 살펴보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핵심감사사항의 가독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018년 감사보고서의 정보유용성 제고를 위해 핵심감사사항 등 중요한 정보를 추가하고 보고체계를 대폭 개편하였으나, 확장된 감사보고서가 가치관련성을 향상시켰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이영한 등 2023). 투자자들이 의사결정과 관련 있는 정보를 읽기 쉬운 텍스트로 전달받을 경우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McNamara et al. 2014), 선행연구의 결과는 새롭게 도입된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KAM)의 낮은 가독성이 원인일 수 있다. 특히 감사보고서는 상용문구(boilerplate language)의 사용이 많고, 연도별로 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아 경직적이며(year-over-year stickiness), 동료 그룹 간 유사하게(within-peer group similarity) 작성되는 특징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표 감사인의 KAM 가독성은 감사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eebeck 2024). 대형회계법인이 높은 감사품질을 신호(signal)하기 위해 가독성 높은 KAM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규모가 크고 복잡한 피감사기업의 특성 또는 잠재적인 소송위험을 낮추기 위한 정보제공의 증가로 KAM의 가독성이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Watts and Zimmerman 1983; Küster

2024). 따라서 감사보고서 체계개편 이후 대형회계법인의 KAM 가독성에 대해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KAM의 낮은 가독성이 감사보고서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감독당국의 목표인 감사보고서 정보유용성 제고를 위해 KAM의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가독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회계법인은 소속 감사인의 대리인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내부지배구조로서 품질관리시스템을 시행하여 회계감사를 모니터링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Lennox and Wu 2018).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는 감사보고서 발행 전 심사(pre-issuance reviews), 감사보고서 발행 직후 선정된 감사팀에 대한 내부 감리(internal inspections)를 포함하며, 효과적인 내부감시 프로그램은 재무보고의 품질을 개선시킨다(Aobdia and Petacchi 2023). 높은 감사품질은 감사보고서 가독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하석태 등 2020), 품질관리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회계법인일수록 KAM 가독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회계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해 2019년 11월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를 시행하였으며, 감사품질 관련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등록요건을 구성하여¹⁾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왔다. 이와 더불어 감독당국이 등록회계법인에 대해 품질관리 감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고, 회계법인 분류기준²⁾에서 품질관리 인력비 비중을 중요하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5.3.)에 따르면, 상장사 감사인 진입(등록)요건은 ① 40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② 회계법인 규모에 비례하는 품질관리 인력 확보, ③ 통합품질관리체계 구축, ④ 감사보고서 심리체계 구축, ⑤ 성과평가 시 품질평가지표 활용 등 감사품질 관련 핵심사항을 포함한다.

2) 피감사회사는 전기말 자산(별도)규모에 따라 2조원 이상은 '가'군, 5천억원~2조원은 '나'군, 1천억~5천억원은 '다'군 등 4개(가~라)의 군으로 구분되고, 감사인은 공인회계사수, 품질관리 담당자비중 등 분류기준에 따라 4개 군으로 구분하여 회사가 속한 군보다 감사인의

게 고려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감사인 등록제의 도입으로 과거 품질관리에 거의 관심 없던 중소기업회계법인이 적극적으로 품질관리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하였으나, 상장사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 중소기업 감사인의 지적사항이 평균 10건을 초과하고 있어 실질적 운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3.7.4.). 이와 같이 회계법인이 상장사 감사인 등록을 위해 형식적으로 품질관리부서를 조직하였다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에 대한 투자가 KAM 가독성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감사인 등록제가 실시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상장된 6,049기업-연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형회계법인일수록 KAM의 가독성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자들이 확대된 감사보고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의사결정에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영한 등(202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사보고서가 실질적인 감사위험을 반영하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이해가능하고 간결하게 기술될 수 있도록 KAM의 가독성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품질관리에 대한 중요도를 품질관리 인건비 비중으로 측정하여 가독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품질관리 중요도가 클수록 가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회계법인과 대의 상호작용항에서도 품질관리 중요도와 가독성 간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존재하여 대형회계법인의 낮은 가독성이 품질관리시

스템 강화를 통해 완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이익의 질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핵심감사사항 정보를 공시한다는 Zeng et al. (2021)과 연계하면, 품질관리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회계법인의 높은 감사품질이 가독성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달리 중소기업회계법인은 품질관리가 가독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회계법인이 상장사 감사인 등록을 위해 형식적으로 품질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채용하였다는 논란³⁾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본 연구결과는 품질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대형회계법인에 대해 품질관리에 대한 투자가 가독성을 개선시킴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감독당국의 중소기업회계법인에 대한 경영전반 관리체계 점검에 타당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중소기업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 강화와 실질적인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추가적으로 피감사회사의 자산규모를 고려한 분석에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품질관리의 가독성에 대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자산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과 자산 5천억원 미만 표본에서는 본 연구의 주된 결과가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유의하지 않은 결과는 해당 기업들의 회계법인 내 경제적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회계법인 수준의 품질관리 중요도와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품질관리를 한 결과로 추론된다(Aobdia and Petacchi 2023). 강건성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에 대한 중요도를 품질관리 전담인력수로 측정하여 분석을 재 실시한 경우에도 주된 분석결과가 유지됨을

군이 낮아지지 않도록 감사인을 지정한다(금융감독원 2023년 감사인 지정제도 설명회 설명자료 p.13 발췌). 최근 감사인 '가군 분류기준에서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비중이 기존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의 120%이상에서 140%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어 품질관리의 중요성은 재차 확인된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2.9.30.).

3) 파이낸셜뉴스(2023.9.30.) 「단독」 "급히 채웠다"...품질관리 지적받은 중소기업법인, 인원은 늘려왔다"
<https://www.fnnews.com/news/202309271131298552>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첫째, 본 연구는 회계법인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KAM의 가독성 측면에서 발견함으로써 품질관리 관련 선행 연구를 확장한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후 감독당국은 상장사 감사인에 대해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과 동시에 제재수단을 강화함으로써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2.5.3.). 그러나 품질관리체계의 강화가 감사결과 측면에서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는 품질관리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회계법인일수록 가독성 높은 KAM을 제공한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품질관리 강화가 감사보고서 정보이용자의 이해력을 높여 해당 정보의 유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결과는 현재 감독당국의 상장사 감사인에 대한 면밀한 품질관리감리가 회계법인의 효과적인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감사품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는 감사보고서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계법인 수준에서 추가했다는 점에서도 공헌점을 갖는다. 선행연구는 주로 개별기업 수준의 요인인 감사품질, 감사위원회 특성 등이 감사보고서 가독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왔다(Alikhani et al. 2021; Velte 2018; 하석태 등 2020). 그러나 감사보고서가 감사프로그램을 이용한 감사조서 작성, 감사팀 책임자의 검토(review), 품질관리실의 심리를 거친 결과물임을 고려할 때 회계법인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본 연구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체계가 KAM의 가독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

해 가독성과 관련하여 회계법인 수준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기존연구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셋째, 본 연구는 중소형 상장사 감사인의 감사품질 개선을 위해 원뿔 형태의 경영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감독당국의 주장에 근거를 제시한다. 최근 감독당국은 중소형 등록회계법인의 인사, 자금 및 보상체계에 대해 점검하여 상당수 회계법인이 자금유용 등 부당행위에 가담했음을 밝힌 바 있다.⁴⁾ 이는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한 중소형회계법인의 내부통제가 취약함을 보여주는 증거로 이들 회계법인이 품질관리 측면에서도 형식적으로 요건만 충족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본 연구는 중소형회계법인의 품질관리가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해 해당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가 효과적이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경영관리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감독당국의 주장에 타당성을 높인다.

본 연구의 2장은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가설을 설정하며, 3장에서는 연구방법과 표본선정을 기술한다. 4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5장은 연구의 결론을 내리고 한계점을 서술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및 가설설정

2.1 감사보고서 가독성 관련 선행연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상당수의 정보이용자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시정보의 유용성 확대를 위

4) 내일신문(2024.2.7.) ‘가족 허위채용 등 부정’ 회계법인 다수 적발 … 업계는 반발’
<https://www.naeil.com/news/read/500706?ref=naver>

해 일반 용어(Plain English)를 이용하여 정보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SEC 1998).⁵⁾ 이와 일관되게 Lawrence(2013)는 명확하고 정확한 재무공시가 개인투자자들의 수익률을 높인다는 증거를 통해 가독성(readability)의 개선이 개인들의 상대적인 정보 불이익(information disadvantage)을 감소시킴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재무정보는 특성상 법률용어와 전문용어를 많이 포함하기 때문에 가독성(readability)은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가독성이 낮은 재무정보에 대해 이익지속성이 낮아지고, 추가반응이 적으며, 추가지연반응은 크게 나타나는 선행연구 결과는 가독성 낮은 재무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잘 보여준다(Li 2008; You and Zhang 2009; Callen et al 2013). 국내연구로는 정태진 등(2018)이 Li(2008)의 연구 방법을 우리나라 사업보고서에 적용하여 이익이 낮은 기업의 가독성이 낮고, 낮은 가독성이 이익의 지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우리나라 투자자도 가독성의 영향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영자들이 부정적인 정보를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보고서 등의 가독성을 낮추는 경우도 있어 낮은 가독성은 위험과도 관련성을 갖는다(Rogers et al. 2014; Abernathy et al. 2019).

감사보고서 가독성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새로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도입되기 시작한 핵심감사사항(KAM)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Velte(2018)은 영국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위원회 내의 여성비중이 많을수록 KAM의 가독성이 높아짐을 확인하였으며, Ong et al.(2022)는 호주 석사 대학원생 181명을 대상으로 비전문적인 투자자들의 KAM의 가독성과

수치화(quantification)가 재무제표 이해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experiment)하여 KAM이 읽기 쉬우면(readable)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더 되고, KAM이 가독성 있을 때 수치화가 더 유익하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Seebeck(2024)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영국의 FTSE 350 기업을 대상으로 KAM이 시간 경과에 따라 유사성이 높아진다는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대형회계법인이 더 유사하고 판에 박힌(boilerplate)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Küster(2024)는 유럽국가들을 대상으로 KAM의 언어적 특성은 감사인 및 피감사기업의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성을 가짐을 보였으며, 대형회계법인의 KAM은 더 길고, 가독성이 낮으며, 구체적인 정보가 적고, 더 많은 상용문구(boilerplate phrases)를 이용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국내연구로는 하석태 등(2020)이 감사품질과 감사보고서 가독성 간의 양(+)의 관련성이 KAM 또는 추가가제 사항을 가진 기업과 대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경우에만 존재함을 밝혀 감사품질이 가독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2.2 회계법인 품질관리 관련 선행연구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는 상호검토(peer review)를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되었으나, 엔론 등 대규모 회계분식사건이 발생하면서 감독당국이 품질관리감리를 시행하는 공적감독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는 미국 PCAOB(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의 감리가 회계감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왔으며, PCAOB 감리

5) SEC(1998, p.5) "A plain English document uses words economically and at a level the audience can understand. Its sentence structure is tight. Its tone is welcoming and direct. Its design is visually appealing. A plain English document is easy to read and looks like it's meant to be read."

가 내부통제를 포함한 감사품질을 개선시키고, 감리 지적사항이 심각한 감사인의 피감사기업이 재무제표 재발행 가능성이 높음을 보임으로써 감독당국의 품질 관리감리 효과를 지지한다(Carcello et al. 2011; Gunny and Zhang 2013; DeFond and Lennox 2017; Krishnan et al. 2017).

회계법인의 감사품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계법인 내에서 행해지는 내부감리(internal inspections)도 중요하다.⁶⁾ 이와 관련하여 Aobdia and Petacchi(2023)은 PCAOB의 6개 대형회계법인의 비공개 내부감리 자료를 이용하여 감사팀(engagement team)이 내부감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피감사기업의 감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이로 인해 재무보고 품질이 개선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내부감리 결과가 긍정적인 감사팀의 감사노력은 감리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였고, 부정적인 의견을 받은 감사팀의 경우 회계법인이 PCAOB로부터 내부감리 프로그램에 대해 부족함(deficiency)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만 감사노력의 증가가 감사품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재무보고 품질 향상을 위해 효과적인 내부감리 시스템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국내연구로는 이재은(2011)이 회계법인이 금융감독원 품질관리감리 대상이거나 외국회계감독기구의 감시를 받는 경우 감사품질이 높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고, non-Big4 회계법인이 원펌(one-firm)으로 운영되는 경우 Big4 수준의 감사품을 나타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최진영 등(2013)은 품질 관리감리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대형 회계

법인에 대해서는 원펌과 사원(partner) 중 이사(director) 비중이 품질관리수준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소형회계법인의 경우 상장사 감사비중이 클수록 품질관리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영환과 장금주(2016)는 업무품질관리검토(engagement quality control review, EQR) 투입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재무적 위험이 높은 기업과 초도감사에 대해 EQR 투입시간이 유의하게 많고, 이러한 관계는 대형회계법인(Big4)의 경우 더 강하게 나타남을 보여 Big4가 EQR 관련 감사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한편 정영기와 이영환(2020)은 감사품질 제고에 필요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회계법인 품질관리 책임회계사 6인을 심층면담 한 결과 회계법인 규모에 관계없이 내부품질관리의 유효성이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고한다. 이와 일관되게 석완주와 박경호(2021)는 품질관리 전담자 존재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라경흠(2024)은 회계법인 품질관리실 인력에서 경력 높은 인원이 많거나 인건비 예산 중 품질관리 비중이 클수록 감사품질이 향상된다는 분석결과를 통해 감사품질에서 품질관리조직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2.3 가설설정

감사보고서의 정보유용성 제고를 위해 2018년부터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과 핵심감사사항(KAM)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 표시하고 감사의견

6) 회계법인의 품질관리(quality management)는 감사보고서 발행 전 검토(pre-issuance reviews), 내부감리(internal inspections), 외부감리(external inspections)를 포함한다. 감사보고서 발행 전 검토는 업무품질관리검토(engagement quality review)를 의미하며, 감사보고서 발행 후 수행되는 내부감리는 내부적으로 선발된 감사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일정기간(보통 3~5년)마다 수검받는다(PwC 2023).

근거 등을 추가하는 등 감사보고서의 정보량이 급격하게 확대되었다.⁷⁾ 특히 2020년부터 전체 상장사에 KAM이 적용되었고 95%이상의 상장사가 1개 이상의 KAM을 보고하고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감사보고서 정보량이 많은 상황이다.⁸⁾ KAM의 정보유용성을 분석한 이영한 등(2023)은 설문조사에서 감사보고서 공급자와 이용자 모두 KAM이 보통이상의 유용성을 갖는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KAM 정보량이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KAM 정보를 투자자들이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저자들은 정보량만 늘리는 공시행태가 원인일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특수용어 사용 지양 및 실질적 핵심내용을 구성으로 KAM을 공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공시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쉽게 작성될 필요가 있으며(SEC 1998), 가독성이 투자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Lawrence 2013). KAM이 주로 수익인식, 수주산업, 금융상품 등 전문용어가 많이 사용되는 분야와 관련되므로 이러한 정보는 일반 정보이용자가 이해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확장된 감사보고서를 KAM의 가독성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대형회계법인의 가독성에 초점을 맞춘다.

KAM이 2018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도입되었고, 해당 감사시장에서의

Big4의 점유율이 90%를 초과함을 고려할 때 대형 회계법인이 확장된 감사보고서의 KAM 작성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12.1.). 감사인은 높은 감사품질을 신호할(signalling) 유인을 갖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과 감사도구를 갖춘 대형회계법인은 가독성 높은 KAM을 작성할 가능성이 존재한다(Watts and Zimmerman 1983). Smith(2023)는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ISA(International Standards on Auditing) 700 실행 이후 확장된 감사보고서(expanded audit report)의 가독성이 향상되었음을 보이고, Hussin et al.(2023)은 말레이시아에 상장된 FTSE 100을 대상으로 대형회계법인이 가독성 높은 KAM을 공시한다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이를 지지한다.⁹⁾

이와 반대로 소송위험에 민감한 대형회계법인은 낮은 가독성의 KAM을 보고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가독성이 낮은 사업보고서와 같이 위험이 높은 피감사기업에 대해 감사인은 더 많은 감사노력을 투입하기 때문에 감사보수는 높아지고, 감사기간(audit delay)도 길어진다(Blanco et al. 2021; Cho et al. 2022). 증가된 감사노력은 더 길고 가독성 낮은 KAM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감사인이 위험한 내용의 공시가 소송에 이르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정보의 양을 의도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위험 관련 더 많은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될 수 있다(Küster 2024). 이와 더불어 대형회계법인의 피감사기업은 대규모, 복잡한 사업형태 등의 특성을

7)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2021.1.20.)에 따르면 기존 감사보고서는 ①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②감사인의 책임, ③감사의견, ④강조·기타사항, ⑤감사보고서일, 주소, 서명을 포함하였으나, 새로운 감사보고서는 ①감사의견, ②감사의견 근거, ③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④핵심감사사항, ⑤강조·기타사항, ⑥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⑦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⑧감사보고서일, 주소, 서명을 포함한다.

8)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1.12.1.)에서 2020년 상장회사 2,212개 중 2,110개가 KAM을 기재하였으며,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기업 419개 중 3개의 기업만 KAM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 Smith(2023)의 표본 93%가 대형회계법인에서 감사받았음을 고려할 때 Smith(2023)의 결과는 대형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가독성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갖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길고 복잡한 단어들이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Seebach(2024)은 확장된 감사보고서가 시간 경과에 따라 유사성이 높아짐을 보이면서, 대형회계법인은 보다 표준화된 보고 프로세스를 가지고 KAM 설명을 위해 대부분의 산업과 위험 유형별 표준 문구양식으로 구성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빠르게 생성하기 때문에 더 유사하고 판에 박힌(boilerplate) 표현을 이용한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형회계법인의 KAM 가독성에 대해서는 방향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귀무가설의 형태로 가설 1을 설정한다.

가설 1: 대형회계법인(Big4)과 KAM 가독성은 관련성이 없다.

감사인은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지 않은 의무공시 정보를 엄청난 양의 텍스트와 데이터 속에 묻어두는 전략을 취한다(Loughran and McDonald 2014).¹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는 감리대상 피감사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노력을 증가시키고, 감사인의 회피(shirking)를 억제함으로써 감사품질을 개선시킨다(Aobdia and Petacchi 2023). 이와 일관되게 정영기와 이영한(2020)은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내부 품질관리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독립성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라경흠(2024)도 회계법인 품질관리실의 인건비 예산비중이 크거나 경력 높은 인원으로 구성될수록 감사품질이 향상됨을 보여준다. 하석태 등(2020)이 밝힌 바와 같이 감사품질과 가독성 간에 양(+)의 관련성이 존재하므로 품질관리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회계법인일수록 감사인이 모호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억제함으로써 가독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시행과 함께 회계법인이 상장사를 감사하기 위한 품질관리 인력 요건이 강화되면서 중소형 회계법인도 상장사 감사인 등록을 위해 품질관리 조직을 확충하여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7개 상장사 감사인(Big4 2개, non-Big4 15개)에 대해 품질관리감리를 수행한 결과 Big4의 평균 지적건수는 2개인 반면, non-Big4의 평균 지적건수가 10개를 초과하여 중소형 회계법인은 품질관리제도의 실질적 운영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3.7.4.). 자산 규모가 큰 상장회사 감사를 위해 품질관리 인원비중의 확대가 필수적이므로 품질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채 고객 확보를 위해 관련 인원만 확대한 경우라면 품질관리는 KAM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품질관리가 KAM 가독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반된 예상이 모두 가능하므로 가설 2는 아래와 같이 귀무가설로 설정한다.

가설 2: 회계법인 품질관리는 KAM 가독성과 관련이 없다.

금융감독원 품질관리감리 결과에서 Big4와 non-Big4 간의 지적건수는 유의하게 차이가 존재하지만, Big4간 지적건수는 거의 차이가 없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3.7.4.). 이영한과 장금주(2016)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Big4는 non-Big4에 비해 효과적으로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는 Big4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품질관리감리와 미국 PCAOB와 공동검사

10) Loughran and McDonald(2014) 각주 3 참조

의 결과일 수 있다(금융감독원 정례브리핑 자료 2010. 10.6.). 그러나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감리는 주로 통제환경 평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품질관리제도 측면에서 동일하게 적정한 것으로 평가받더라도 감사 품질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개별감사의 충실성은 회계법인 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¹¹⁾ Boritz et al.(2016)은 Big6가 non-Big6 보다 가독성 낮은 SOX 404 내부통제 보고서를 공시하지만, Big4의 가독성이 차별적임을 보임으로써 이를 지지한다. 만약 가설 1에서 Big4의 KAM 가독성이 낮은 가운데 Boritz et al.(2016)과 일관되게 국내 Big4의 가독성이 차별적이라면 품질관리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회계법인일수록 가독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에 따라 품질관리 조직을 확대 및 재편한 non-Big4와 달리 Big4는 금융감독원과 외국 회계감독기구로부터 지속적으로 품질관리감리를 받아왔기 때문에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관련 조직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근거하여 다음의 가설 2-1을 설정한다.

가설 2-1: 대형회계법인(Big4)의 품질관리 중요도가 클수록 KAM 가독성은 높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론

3.1 연구표본

본 연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연도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1)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기업, (2) 12월 이외의 결산월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 (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기업의 감사보고서와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를 통해 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수집이 가능한 기업, (4) Valuesearch(구 Kisvalue)를 통해 재무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기업.

가독성 측정에 필요한 감사보고서 전문과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관련 정보는 파이썬 기반의 크롤러를 제작하여 수집하였으며, 그 외 재무정보는 Valuesearch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추출하였다. 분석에 이용한 최종 표본은 6,049개 기업-연도이다.

3.2 가독성 측정

본 연구에서 이용한 가독성 측정치는 Flesch(1948)의 Flesch Reading Ease Formula(FLESCH)와 Gunning(1952)의 Fog Index(FOG) 두 가지이다. 단어의 길이, 문장의 길이, 복잡한 단어의 비율 등을 통해 가독성을 정량화하는 측정치로 회계 분야에서 Li(2008)의 연구 이후 해당 측정치들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먼저, Flesch(1948)의 가독성 측정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AWL은 글의 음절수/단어수, ASL은 글의 단어수/문장수로 측정한다. 측정된 FLESCH 값이 클수록 글의 가독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FLESCH = 206.835 - 84.6*AWL - 1.015*ASL \quad (1)$$

11) 삼일아이닷컴(2022.9.1.) '[전문가 칼럼] 감사품질로 경쟁하는 회계업계를 만들기 위한 품질관리 방법' <https://samilicom.tistory.com/1027>

다음으로, Gunning(1952)의 Fog Index(FOG)는 여러 연구에서 가독성의 측정치로 사용되어 왔으며, 평균문장길이(ASL, 단어수/문장수)와 복잡한 단어의 비율(PCW, [3음절 이상 단어수/총 단어수]*100)을 기반으로 측정한다. 복잡한 단어가 많을수록 글의 이해 난이도가 높아지므로, Fog Index가 높을수록 글을 이해하는 데 있어 더 높은 정규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하게 된다. 해석의 편의를 위해 Fog Index의 값에 -1을 곱하여 측정값이 높을수록 가독성이 높은 것으로 변수를 설정하였다. 정태진 등(2018)은 Fog Index를 한국어 가독성 측정에 적용하는 것이 본래의 영어를 대상으로 한 가독성 측정과는 다를 가능성이 있으나 상대적인 척도로 사용할 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FOG = (-1) * 0.4 * (ASL + PCW) \quad (2)$$

3.3 회귀분석 모형

본 연구의 가설 1은 대형회계법인의 KAM 가독성을 검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회귀분석 모형 식(3)을 설정하였다.

$$Readability = \beta_0 + \beta_1 BIG4 + \lambda'Controls + YearFE + IndFE + \varepsilon \quad (3)$$

Readability : KAM 가독성(FOG, FLESCH);
 FOG : 가독성 측정치 = (-1)*0.4*(ASL+PCW);
 FLESCH : 가독성 측정치 = 206.835 - 84.6*AWL - 1.015*ASL;

BIG4 : 회계감사인이 대형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Controls : 아래의 통제변수들;
 SIZE : 총자산의 자연로그값;
 LEV :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
 MB : 시가총액을 총자본으로 나눈 값;
 ROA : 당기순이익을 평균총자산으로 나눈 값;
 UE : 비기대이익(당기순이익에서 전기순이익을 차감한 값)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
 FOR : 외국인지분율;
 KOSPI : 유가증권시장기업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LOSS : 당기순손실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LNAGE : 상장이후로부터의 기업연수(2023년 기준)의 자연로그값;
 AUOP : 적정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FIRST : 회계감사인 변경의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YearFE : 연도 더미;
 IndFE : 산업 더미(중분류 기준);
 ε : 잔차항.

식(3)에서 종속변수인 가독성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FOG와 FLESCH 두가지 방법을 통해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보고서에 제시하고 있는 핵심감사사항(KAM)을 대상으로 가독성을 측정하여 변수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감사보고서 전문 중에서도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있어 가장 유용하고 차별적인 정보라고 볼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기 위함이다.¹²⁾ 가설 1은 대형회계법인의 KAM 가독성에 대한 검증에 대한 것이므로, 주요 관심변수는 대형회계법인인 경우 1의 값을

12) 감사보고서 전문에 대해서 가독성을 측정하여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검증결과는 질적으로 동일하다.

가지는 더미변수(*BIG4*)로 설정하여 해당 변수에 대한 계수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검증한다. 국외 선행연구와 일관되게 국내 대형회계법인의 가독성이 낮다면, *BIG4*의 계수는 유의하게 음(-)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식(3)에서의 *Controls*는 가독성과 관련하여 기업 특성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여러 변수들로 구성한다. 먼저, 기업규모가 큰 경우 정보이용자들의 공시 압력이 높아 공시의 양이 증가할 수 있어 가독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기업의 규모(*SIZE*)를 포함한다(정태진 등 2018). 부채비율(*LEV*)은 채무위험과 관련된 변수로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채권자들의 정보 공시 요구량이 많아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송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업도 공시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Bradbury 1992). 기업규모와 유사한 논리로 공시 정보가 많아지는 경우 가독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률을 통제하기 위해 시장가치-장부가치비율(*MB*)과 총자산수익률(*ROA*), 비기대이익(*UE*), 손실여부(*LOSS*)를 포함하였다. 성장기회가 높은 기업은 사업모형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불확실할 수 있기에 공시되는 정보의 가독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고(정태진 등 2018), 이익정보가 부정적이거나 정보이용자들의 기대와 다를 경우 소통이 복잡하여 정보의 가독성이 낮아질 수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가 가독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외국인지분율(*FOR*)을 포함하였고, 시장소속형태도 공시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가증권 상장기업더미(*KOSPI*)를 추가하였다. 기업연수가 오래될수록 공시정보가 많아지거나 상장이후 이해관계자들에게 가독성이 높은 정보를 공시할 유인이 있는 등의 관련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업연수(*LNAGE*)도 포함하였다(정태진 등 2018; 도용선과 이다혜

2024). 감사보고서 공시정보와 관련하여 감사인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회계감사인 변경여부(*FIRST*)와 적정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여부(*AUOP*)를 포함하였다. 그 밖에 잠재적인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산업 고정효과(*IndFE*)와 연도고정효과(*YearFE*)를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가설 2는 회계법인 품질관리 중요도와 KAM의 가독성 간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하며, 가설 2-1은 대형회계법인과 KAM의 가독성 간 관련성에 품질관리 중요도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식(4)와 식(5)를 통해 회귀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begin{aligned} \text{Readability} = & \beta_0 + \beta_1 \text{BIG4} + \beta_2 \text{QYFEE} \\ & + \lambda' \text{Controls} + \text{YearFE} \\ & + \text{IndFE} + \varepsilon \end{aligned} \quad (4)$$

$$\begin{aligned} \text{Readability} = & \beta_0 + \beta_1 \text{BIG4} + \beta_2 \text{QYFEE} \\ & + \beta_3 \text{BIG4} \times \text{QYFEE} \\ & + \lambda' \text{Controls} + \text{YearFE} \\ & + \text{IndFE} + \varepsilon \end{aligned} \quad (5)$$

QYFEE :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관련 인건비 비중의 자연로그값, 품질관리 인건비 비중 = (품질관리 관련 인건비/회계법인 전체 인건비)*100;
BIG4 × QYFEE : 대형회계법인과 품질관리 인건비 비중 간 교호항.

품질관리 중요도(*QYFEE*)는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 공시되어 있는 품질관리 관련 예산(인건비) 비중 정보를 수집하여 품질관리 관련 인건비를 회계법인 전체 인건비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값을 자

연로그화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¹³⁾ 가설 2의 관심 대상은 품질관리 중요도와 가독성 간 관계이므로 *QYFEE*의 계수가 유의하게 나타나는지 검증하고, 대형회계법인이 품질관리를 중요하게 고려할수록 가독성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서는 두 변수 간 교호항 ($BIG4 \times QYFEE$)을 통해 분석한다.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연속변수는 연도별로 1% 및 99%에서 윈저화(winsorize) 처리하였고, 표준오차를 기업별로 클러스터링하여 t값을 산출하였다.

IV. 실증분석 결과

4.1 기술통계량

〈Table 1〉은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이용한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나타낸다. 감사보고서 KAM의 가독성을 측정된 변수인 *FOG*의 평균(중위수)은 -8.641(-8.489), *FLESCH*의 평균(중위수)은 183.424(184.843)로 나타나, 평균과 중위수 간 격차가 크지 않았다. *FOG*의 표준편차는 2.221, *FLESCH*의 표준편차는 8.902로 나타나고 있다. 별도의 표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감사보고서 전문을 대상으로 측정된 가독성은 *FOG*와 *FLESCH*의 평균이 각각 -7.86과 186.791로 KAM에 비해 다소 높으나, 표준편차는 각각 0.469, 1.264로 KAM 대비 상당히 낮았다. 이는 KAM 이외의 감사보고서 내용이 회계감사기준서에서 제시한 사례와 대체로 유사하게 작성됨을 고

려할 때, KAM의 가독성이 기업별로 차별적인 특징을 가짐을 의미한다.

분석에 이용한 연구표본 중 대형회계법인(*BIG4*)에서 감사받은 비중은 32.1%로 상장회사 감사시장에서 대형회계법인의 비중이 신외감법 시행 이후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¹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인력비 비중(*QYFEE*)의 평균은 1.043, 중위값은 1.006로 나타났는데, 자연로그를 취하지 않은 값 기준 평균 3.057%, 중위값 2.734%에 해당하여 표본 상 회계법인이 품질관리 인력에 투입하고 있는 인건비가 평균적으로 3%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본 중 32.4%가 감사인을 교체(*FIRST*)하였고, 적정 이외의 감사의견(*AUOP*)을 받은 표본은 약 1% 수준이다.

4.2 대형회계법인의 핵심감사사항(KAM) 가독성

본 연구의 가설 1은 대형회계법인의 KAM 가독성을 살펴본다. (1)열과 (2)열은 각각 감사보고서 가독성을 *FOG*와 *FLESCH*를 사용한 결과이다.

〈Table 2〉의 열 (1)과 (2) 모두 관심변수인 *BIG4*의 계수 값이 유의하게 음(-)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열의 종속변수 *FOG*에 대해서 *BIG4* 계수는 -0.269, t값은 -3.132로 1% 수준에서 유의하고, (2)열의 종속변수 *FLESCH*에 대해서도 *BIG4* 계수는 -0.991, t값은 -3.645로 1% 수준에서 유의하다. 이는 국내 대형회계법인이 복잡한 단어를 이용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표현 등을 사용하여 비전문가인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로 KAM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형회계법인의 낮은 KAM

13) 인건비 비중 자체를 사용해도 검증결과는 동일하다. 강건성을 위해 추가로 품질관리인력 구성인원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14) 예를 들어, 정태진 등(2018)의 1998년-2015년 대상 표본에서의 대형회계법인 터미변수의 평균을 0.469로 제시하고 있음을 고려해볼 수 있다.

〈Table 1〉 기술통계량

	Mean	S.D.	p25	p50	p75
FOG	-8.641	2.221	-9.840	-8.489	-7.333
FLESCH	183.424	8.902	181.170	184.843	187.819
BIG4	0.321	0.467	0.000	0.000	1.000
QYFEE	1.043	0.385	0.800	1.006	1.321
SIZE	26.002	1.318	25.094	25.772	26.670
LEV	0.367	0.198	0.204	0.355	0.505
MB	2.332	2.697	0.839	1.479	2.686
ROA	-0.001	0.133	-0.032	0.023	0.064
UE	0.006	0.152	-0.034	0.003	0.044
FOR	0.058	0.092	0.009	0.022	0.062
KOSPI	0.325	0.468	0.000	0.000	1.000
LOSS	0.344	0.475	0.000	0.000	1.000
LNAGE	2.594	0.849	2.079	2.773	3.178
AUOP	0.009	0.096	0.000	0.000	0.000
FIRST	0.324	0.468	0.000	0.000	1.000

1) 변수정의는 식(3)과 식(4)를 참조

가독성은 감사위험에 대한 증가된 감사노력이 더 많은 정보제공으로 이어진 결과일 수도 있고, 피감사기업의 큰 규모와 복잡한 사업구조의 영향일 수도 있으며, 잠재적인 소송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감사인의 의도적인 정보량 증가가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Cho et al. 2022; Küster 2024). 감독당국의 감사보고서 체계 개편이 정보유용성 제고에 목적이 있고, 낮은 가독성은 정보이용자들의 상대적인 정보 불이익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Lawrence 2013), 〈Table 2〉의 결과는 대형회계법인이 충분한 정보가 가독성 있게 반영되도록 KAM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4.3 품질관리 중요도와 KAM 가독성

〈Table 3〉은 가설 2와 2-1을 식 (4)와 (5)에 따

라 품질관리 중요도(QYFEE), 대형회계법인과 품질관리 중요도 간 교호항($BIG4 \times QYFEE$)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열 (1)과 (2)는 가설 2에 따라 품질관리 중요도(QYFEE)를 검증한 결과이며, 열 (3)과 (4)는 가설 2-1의 검증을 위해 대형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중요도($BIG4 \times QYFEE$)의 영향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열 (1)과 (3)은 가독성을 FOG로 측정하였으며, 열 (2)와 (4)는 가독성 변수로 FLESCH를 사용하였다.

열 (1)과 (2)의 관심변수인 QYFEE의 계수 값은 각각 0.303(t값 3.217)과 1.298(t값 4.059)로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어 품질관리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회계법인일수록 KAM 가독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익의 질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핵심감사사항 정보를 공시한다는 Zeng et al.(2021)

〈Table 2〉 대형회계법인의 KAM 가독성

	(1) <i>FOG</i>	(2) <i>FLESCH</i>
<i>BIG4</i>	-0.269*** (-3.132)	-0.991*** (-3.645)
<i>SIZE</i>	-0.387*** (-8.532)	-0.664*** (-4.135)
<i>LEV</i>	0.273 (1.249)	-2.077** (-2.468)
<i>MB</i>	-0.010 (-0.654)	-0.046 (-0.833)
<i>ROA</i>	0.324 (0.869)	5.978*** (3.349)
<i>UE</i>	0.216 (0.962)	-3.732*** (-3.452)
<i>FOR</i>	0.618 (1.388)	-2.346 (-1.585)
<i>KOSPI</i>	0.113 (1.144)	0.054 (0.166)
<i>LOSS</i>	-0.066 (-0.764)	-0.117 (-0.364)
<i>LNAGE</i>	-0.078 (-1.630)	-0.121 (-0.815)
<i>AUOP</i>	6.612*** (12.905)	-46.624*** (-12.170)
<i>FIRST</i>	-0.793*** (-13.554)	-2.792*** (-12.700)
<i>Constant</i>	1.770 (1.552)	203.728*** (51.271)
Year fixed effects	Yes	Yes
Industry fixed effects	Yes	Yes
N	6,049	6,049
Adj. R2	0.197	0.340

1) 변수정의는 식(3), 식(4)를 참조

2)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3) 제시한 t-value는 기업별 클러스터링에 기반하여 계산된 값임.

에 기반한다면, 품질관리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회계법인이 높은 감사품질을 제공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고, 이것이 KAM의 가독성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형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중요도가 KAM

가독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열 (3)과 (4)에서 관심변수인 $BIG4 \times QYFEE$ 의 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계수값 = 1.209, 3.089, t값 = 4.666, 3.742,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함). 이는 〈Table 2〉의 결과와 연계하여 대형회계

〈Table 3〉 품질관리 인건비비중과 KAM 가독성

	(1)	(2)	(3)	(4)
	<i>FOG</i>	<i>FLESCH</i>	<i>FOG</i>	<i>FLESCH</i>
<i>BIG4</i>	-0.354*** (-4.003)	-1.355*** (-4.822)	-1.771*** (-5.581)	-4.976*** (-4.811)
<i>QYFEE</i>	0.303*** (3.217)	1.298*** (4.059)	0.088 (0.848)	0.748** (2.093)
<i>BIG4</i> × <i>QYFEE</i>			1.209*** (4.666)	3.089*** (3.742)
Controls	Yes	Yes	Yes	Yes
Year/Ind fixed	Yes	Yes	Yes	Yes
N	6,049	6,049	6,049	6,049
Adj. R2	0.200	0.343	0.205	0.345

1) 변수정의는 식(3), 식(4)를 참조

2)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3) 제시한 t-value는 기업별 클러스터링에 기반하여 계산된 값임.

법인의 낮은 가독성이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감독당국에서 강조하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가 가독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열 (3)과 (4)의 *QYFEE*의 계수는 일부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 중소형회계법인의 경우 품질관리 중요도가 KAM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2020년부터 시행되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부 중소형회계법인의 형식적인 품질관리 조직 구성 및 인력 채용이 결과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4.4 추가분석

4.4.1 기업규모를 고려한 분석

추가적으로 피감사회사의 자산규모를 고려하여 상기의 분석을 재수행하였다. 자산규모는 5천억원 미만

표본(SizeGroup1), 5천억원 이상 - 2조원 미만 표본(SizeGroup2), 2조원 이상 표본(SizeGroup3)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신뢰감법을 비롯한 국내 여러 제도에 있어 자산규모 5천억원, 2조원 기준으로 설정하여 도입되거나 시행된 사례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자산규모 별 가독성 측정치의 통계치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FOG*(*FLESCH*) 변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자산 5천억원 미만 표본에 대해 -8.478(183.760), 5천억원 이상 - 2조원 미만 표본에 대해 -9.069(182.777), 2조원 이상 표본에 대해 -9.907(180.352)로 제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의 자산규모가 커질수록 KAM의 가독성 수준이 낮아짐을 나타낸다.

〈Table 5〉는 피감사기업의 자산규모별 표본에 대해 식 (5)의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다. 열 (1)과 (2)는 5천억원 미만 표본(SizeGroup1), 열 (3)과 (4)는 5천억원 이상 - 2조원 미만 표본(SizeGroup2), 열 (5)와 (6)은 2조원 이상 표본(SizeGroup3)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열 (1), (3), (5)는 가독성

〈Table 4〉 기업규모 별 가독성

	Obs.	Mean	S.D.	p25	p50	p75
<i>SizeGroup1</i>						
<i>FOG</i>	4,916	-8.478	2.181	-9.639	-8.343	-7.257
<i>FLESCH</i>	4,916	183.760	9.222	181.841	185.294	188.058
<i>SizeGroup2</i>						
<i>FOG</i>	755	-9.069	2.132	-10.350	-8.900	-7.667
<i>FLESCH</i>	755	182.777	7.011	179.938	183.617	186.950
<i>SizeGroup3</i>						
<i>FOG</i>	378	-9.907	2.385	-11.307	-9.828	-8.300
<i>FLESCH</i>	378	180.352	7.259	177.329	180.889	185.230

1) 변수정의는 식(3)을 참조

〈Table 5〉 기업규모를 고려한 분석

	SizeGroup1		SizeGroup2		SizeGroup3	
	(1)	(2)	(3)	(4)	(5)	(6)
	<i>FOG</i>	<i>FLESCH</i>	<i>FOG</i>	<i>FLESCH</i>	<i>FOG</i>	<i>FLESCH</i>
<i>BIG4</i>	-1.472*** (-3.758)	-3.531*** (-2.724)	-2.175*** (-2.826)	-8.171*** (-3.875)	-1.047 (-0.716)	-4.910 (-1.143)
<i>QYFEE</i>	0.087 (0.804)	0.819** (2.181)	0.641 (1.617)	0.914 (0.751)	-0.618 (-0.591)	-1.812 (-0.556)
<i>BIG4 × QYFEE</i>	0.954*** (2.943)	2.037* (1.948)	1.473** (2.323)	5.705*** (3.250)	1.117 (0.947)	3.796 (1.084)
Controls	Yes	Yes	Yes	Yes	Yes	Yes
Year/Ind fixed	Yes	Yes	Yes	Yes	Yes	Yes
N	4,916	4,916	755	755	378	378
Adj. R2	0.180	0.349	0.241	0.425	0.363	0.332

1) 변수정의는 식(3), 식(4)를 참조

2)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3) 제시한 t-value는 기업별 클러스터링에 기반하여 계산된 값임.

을 *FOG*로 측정된 결과이며, 열 (2), (4), (6)은 가독성 변수로 *FLESCH*를 이용한 결과이다.

〈Table 5〉를 살펴보면, 자산규모 2조원 미만 (*SizeGroup1*, *SizeGroup2*)에서는 본 연구결과가 대체로 유지되었으나, 2조원 이상(*SizeGroup3*, 열 (5)와 (6))에서는 관심변수인 *BIG4*, *QYFEE* 및

BIG4 × QYFEE 모두 KAM 가독성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izeGroup3*에 속하는 기업들의 대부분을 *BIG4*가 감사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들이 회계법인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중요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회계법인 수준의 품질관리 중요도와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품질관리를 한 결과로 추론

할 수 있다(Aobdia and Petacchi 2023).¹⁵⁾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피감사기업의 경제적 중요도를 고려한 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고, 이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피감사기업이 회계법인에게 있어 차지하고 있는 중요도를 감사보수를 기준으로 측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피감사기업의 감사보수를 연도-산업별 감사인의 총감사보수로 나눈 값을 이용하였다. 피감사기업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표본을 <Table 5>와 유사하게 3그룹으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¹⁶⁾ 피감사기업의 중요도가 가장 높은 그룹(Client Importance Group3)에서 *BIG4*, *QYFEE* 및 *BIG4 × QYFEE* 모두 KAM 가독성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able 5>에서 SizeGroup3의 경우 기업들의 경제적 중요도가 크기에 품질관리 중요도와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품질관리를 한 결과로 해석한 바를 재확인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4.4.2 품질관리 전담인력수로 측정된 결과

본 연구에서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중요도를 품질관리 인건비 비중으로 측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강건성 확보를 위해 이를 품질관리 전담 인력수로 측정하여 분석을 재수행하였으며,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된 분석결과가 유지됨을 확인하였다.¹⁷⁾

<Table 6> 피감사기업의 경제적 중요도를 고려한 분석

	Client Importance Group1		Client Importance Group2		Client Importance Group3	
	(1)	(2)	(3)	(4)	(5)	(6)
	<i>FOG</i>	<i>FLESCH</i>	<i>FOG</i>	<i>FLESCH</i>	<i>FOG</i>	<i>FLESCH</i>
<i>BIG4</i>	-1.263*** (-2.837)	-5.238*** (-3.693)	-3.151*** (-5.103)	-6.585*** (-3.143)	-1.185 (-1.555)	-2.023 (-0.924)
<i>QYFEE</i>	0.277 (1.234)	0.674 (1.060)	-0.109 (-0.648)	0.665 (1.331)	0.227 (1.305)	1.894*** (2.585)
<i>BIG4 × QYFEE</i>	0.781* (1.918)	3.204*** (2.618)	2.179*** (4.664)	4.236*** (2.724)	0.630 (1.082)	0.165 (0.097)
Controls	Yes	Yes	Yes	Yes	Yes	Yes
Year/Ind fixed	Yes	Yes	Yes	Yes	Yes	Yes
N	2,011	2,011	2,011	2,011	2,011	2,011
Adj. R2	0.110	0.200	0.241	0.439	0.264	0.389

1) Client Importance=피감사기업의 감사보수/연도-산업별 감사인의 총감사보수; 그 외 변수정의는 식(3), 식(4)를 참조

2)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3) 제시한 t-value는 기업별 클러스터링에 기반하여 계산된 값임.

15) 본 연구에서 총자산 2조원 이상 기업 표본 378개 기업-연도 중 대부분인 354개 기업-연도에 대해 대형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6) 피감사기업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16개 표본이 제외되었고, 분석대상 표본은 6,033개이다.

17) 품질관리인력에 대한 정보는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내 품질관리조직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 현황에 공시되어 있어 이를 통해 수집하였고, 품질관리업무 담당인력 중 이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한정하여 인력 수의 제공근으로 변수를 설정하였다(*QYNUMBER*). 표본 내 *QYNUMBER*의 평균값은 4.623, 중위값은 3.317, 표준편차는 2.970로 나타났다.

4.4.3 강건성 분석

추가적으로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인 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사항 정보는 일반적인 가독성에 대한 결정요인 이외에도 피감사기업의 감사특성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 감사과정이 복잡하거나 감사위험이 높은 경우에도 핵심감사사항에 설명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감사복잡성과 감사위험, 감사품질 등에 대한 통제변수를 추가하여 본 연구의 주요 분석을 재수행하였다. 추가 변수로 감사품질의 대응치로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Kothari et al. 2005),¹⁸⁾ 감사복잡성과 감사위험의 대응치들로 총감사투입시간, 유동자산비율,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비율, 총발생액, 매출액성장률,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을 통

제하였다. 추가 통제변수를 포함하여도 본 연구의 <Table 3>과 <Table 4>에서 제시한 주요 분석 결과가 동일하게 유지됨을 확인하였다(Untabulated).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형회계법인의 핵심감사사항의 가독성이 낮은 결과가 대형회계법인이 감사한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대형회계법인이 감사하는 피감사기업의 핵심감사사항이 많고 감사과정이 복잡한 특성에 기인하였을 수 있기에, 이러한 내생성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자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에 기반한 매칭표본을 구성하여 분석을 재수행하였다. 성향점수를 매칭하는데 있어 대형회계법인에 대한 선택모형으로 식 (3)을 동일하게 이용, caliper distance는 0.03을 기반하여 추정하였고, 1:1 매칭표본 2,606개 기업-연도(BIG4 1,303개-NONBIG4 1,303개 표본)를 구성하였다. 매칭표본을 이용한 결과에서도 본 연구의 <Table 3>

<Table 7> 품질관리 인력수로 측정된 결과

	(1) <i>FOG</i>	(2) <i>FLESCH</i>	(3) <i>FOG</i>	(4) <i>FLESCH</i>
<i>BIG4</i>	-1.162*** (-4.175)	-4.485*** (-5.002)	-3.534*** (-6.149)	-10.259*** (-6.014)
<i>QYNUMBER</i>	0.146*** (3.406)	0.572*** (4.295)	-0.058 (-1.023)	0.076 (0.406)
<i>BIG4 × QYNUMBER</i>			0.411*** (4.937)	1.001*** (3.907)
Controls	Yes	Yes	Yes	Yes
Year/Ind fixed	Yes	Yes	Yes	Yes
N	6,049	6,049	6,049	6,049
Adj. R2	0.200	0.343	0.206	0.345

1) 변수정의: QYNUMBER(품질관리전담인력수의 제공근), 그 외 변수정의는 식(3), 식(4)를 참조

2)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3) 제시한 t-value는 기업별 클러스터링에 기반하여 계산된 값임.

18) 총자산순이익률 기준 10분위 그룹 기준 성과대응 재량적발생액을 추정하였으며, 각 산업별 표본이 10개 미만인 경우 추정에서 제외하였다.

〈Table 8〉 강건성 분석 - 성향점수매칭법

	(1) <i>FOG</i>	(2) <i>FLESCH</i>	(3) <i>FOG</i>	(4) <i>FLESCH</i>
<i>BIG4</i>	-0.236** (-2.459)	-0.788*** (-2.619)	-1.620*** (-4.173)	-4.565*** (-3.695)
<i>QYFEE</i>			0.018 (0.112)	0.660 (1.190)
<i>BIG4</i> × <i>QYFEE</i>			1.131*** (3.469)	2.943*** (2.802)
Controls	Yes	Yes	Yes	Yes
Year/Ind fixed	Yes	Yes	Yes	Yes
N	2,606	2,606	2,606	2,606
Adj. R2	0.179	0.367	0.187	0.373

1) 변수정의는 식(3), 식(4)를 참조

2)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3) 제시한 t-value는 기업별 클러스터링에 기반하여 계산된 값임.

과 〈Table 4〉에서 제시한 주요 분석 결과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Table 8에 제시). 이러한 추가분석들에 기반하여 본 논문의 결과가 강건함을 확인하였다.

V. 결론

본 연구는 2018년 감사보고서 체계 개편이후 정보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해당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는 원인을 가독성 측면에서 확인한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감사보고서의 KAM 가독성이 대형회계법인(Big4)에 대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한다.

감사인 등록제가 실시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상장된 6,049기업-연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형회계법인일수록 가독성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확

대된 감사보고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둘째, 품질관리에 대한 중요도를 품질관리 인건비 비중으로 측정하여 가독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품질관리 중요도가 클수록 가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형회계법인과 상호작용항에서도 품질관리 중요도와 가독성 간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존재하여 대형회계법인의 낮은 가독성이 품질관리시스템 강화를 통해 완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형회계법인과 달리 중소형회계법인은 품질관리인력이 KAM 가독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소형회계법인이 상장사 감사인 등록을 위해 형식적으로 품질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채용하였다는 논란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회계법인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가독성 측면에서 발견함으로써 선행연구를 확장하고, KAM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계법인 수준에서 추가했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결과는 감사보고서 정보의 가치관련성 향상을 위해 회계법인은 가독성을 고려해야 하며, 감독당국은 다양한 측면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품질관리 중요성을 품질관리 인건비 비중으로 측정하였으나, 품질관리 체계 구축 등 시스템 투자도 품질관리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투자 측면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후 회계법인 품질관리 시스템 투자 및 운영관련 지출 정보가 공개된다면 품질관리 중요성 변수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2010),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 실시 현황,” 2010.10.6., 정례브리핑 자료.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2010), “Quality Control Oversight of Accounting Firms,” 2010.10.6. Regular Briefing.)
- 금융감독원(2021), “[금융꿀팁 200선 - 120번] - ㉔ 확대된 감사보고서, 현명한 투자를 위해 100% 활용하기,” 2021.1.20., 보도참고자료.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2021), “[Financial Tips 200 - No. 120] - Using 100% of the Changed Audit Report for Wise Investment,” 2021.1.20. Press Reference.)
- 금융감독원(2021), “2020년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기재실태 분석 및 시사점,” 2021.12.1., 보도자료.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2021),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the 2020 Audit Report on Key Audit Matters,” 2021.12.1. Press Releases.)
- 금융감독원(2023), “2023년 감사인 지정제도 설명회 설명 자료,” 2023.8.31., 회계업무자료.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2023), “Explanatory Materials for the 2023 Auditor Designation System Briefing” 2023.8.31. Accounting Practice Materials.)
- 금융감독원(2023),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합니다. - 2022년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 사항 공개 -,” 2023.7.4., 보도자료.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2023), “Disclosure of Improvement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Quality Control Inspections in 2022,” 2023.7.4. Press Releases.)
- 금융위원회(2022),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40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됩니다. -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시행 -,” 2022.5.3., 보도자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2022), “Oversight of Audit Quality Control of 40 Accounting Firms Authorized to Audit Listed Companies will be Significantly Strengthened. - Enforcement of Amendments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nd to the External Audit Regulations -,” 2022.5.3. Press Releases.)
- 금융위원회(2022), “회계법인 역량을 강화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이 시행됩니다.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 -,” 2022.9.30., 보도자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2022), “Enhancements to the Auditor Designation System to Improve Accounting Transparency by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Accounting Firms will be Implemented. - Implementation of Amendments to the Regulations on External Audit and Accounting -,” 2022.9.30. Press Releases.)

- 도용선, 이다혜(2024), "경영진단의견서 (MD&A) 모범사례 스타일 참조와 정보비대칭 및 가독성," **회계저널**, 제33권 1호, pp.59-88.
- (Doa, Y. and D. Lee(2024), "The Impact of Referencing MD&A best Practices on Information Asymmetry and Readability," *Korean Accounting Journal*, 33(1), pp.59-88.)
- 라경흠(2024), "회계법인 품질관리실의 인력 비중, 경력 및 인건비 예산은 감사품질을 향상시키는가?," **회계저널**, 제33권 2호, pp.35-70.
- (Ra, K.(2024), "Do the Personnel Composition, Experience Level, and Personnel Expenses of Accounting Firm's Quality Control Office Enhance Audit Quality?," *Korean Accounting Journal*, 33(2), pp.35-70.)
- 석완주, 박경호(2021),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 도입이 감사 품질에 미치는 영향," **융합정보논문지**, 제11권 9호, pp.75-83.
- (Sug, W. J. and K. H. Park(2021), "An Influence of Introduction of Full-time Quality Control Personnel System On Audit Qualit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1(9), pp.75-83.)
- 이영한, 선우희연, 이혜영(2023), "감사보고서 개편 영향 및 핵심감사사항 보고 사례 연구 심포지엄," 감사보고서 개편 영향 분석 연구 심포지엄 발표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 (Lee, Y. H., H. Y. Sunwoo, and H. Y. Lee(2023), "Symposium on the Impact of the Reform of the Audit Report and Case Studies on Reporting Key Audit Matters," Presentations, The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이영한, 장금주(2016), "감사실폐에 따른 위험요인과 감사인 규모가 감사인의 업무품질관리검토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회계연구**, 제21권 6호, pp. 55-85.
- (Lee, Y. H. and G. J. Jahng(2016), "The Effects of Audit Risk and Auditor Type on Engagement Quality Review Hours,"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21(6), pp.55-85.)
- 이재은(2011), "감사인의 품질관리제도 영향 요소와 감사 품질의 관련성: 금감원 품질관리감리 대상, 외국 회계감독기구 등록 여부 및 조직운영방식 유형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36권 1호, pp.125-181.
- (Lee, J. E.(2011), "Factors Affecting Auditor's Quality Control System and Audit Quality: Korean Evidence Based on Requirements for the FSS's Regulatory Reviews on the Auditors' Quality Control System, Registration with the Foreign Regulatory Authorities, and Partnership Pro," *Korean Accounting Review*, 36(1), pp.125-181.)
- 정영기, 이영한(2020), "감사인의 관점에서 고찰한 감사품질제고 방안," **회계와 정책연구**, 제25권 1호, pp. 23-51.
- (Chung, Y. K. and Y. H. Lee(2020), "A Study on Audit Quality Promotion Strategies from the Viewpoint of Auditor,"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25(1), pp.23-51.)
- 정태진, 임승연, 이우중, 조미옥(2018), "우리말 사업보고서 가독성 연구의 가능성에 대한탐색적 연구," **회계학연구**, 제43권 4호, pp.37-100.
- (Jung, T., S. Y. Lim, W. Lee, and M. Cho(2018), "An Explorative Study to Assess Feasibility of Annual Report Readability Research in Korea," *Korean Accounting Review*, 43(4), pp.37-100.)
- 최진영, 전영순, 김문철, 황문호(2013),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을 결정하는 회계법인 특성," **회계저널**, 제22권 3호, pp.297-328.
- (Choe, J. Y., Y. S. Cheon, M. C. Kim, and M. Hwang (2013), "Audit Firm Characteristics and Quality Control System," *Korean Accounting*

- Journal*, 22(3), pp.297-328.)
- 하석태, 김은실, 조성표(2020), "감사품질이 감사보고서의 가독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38권 3호, pp.83-112.
- (Ha, S., E. Kim, and S. Cho(2020), "The Effect of the Audit Quality on the Audit Report Readability," *Accounting Information Review*, 38(3), pp.83-112.)
- Abernathy, J. L., F. Guo, T. R. Kubick, and A. Masli(2019), "Financial Statement Footnote Readability and Corporate Audit Outcome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38(2), pp.1-26.
- Alikhani, R., M. Maranjory, and S. Davoudi(2021), "Audit Committee Characteristics and Audit Reporting Readability," *Accounting and Auditing Review*, 28(1), pp.80-101.
- Aobdia, D. and R. C. Petacchi(2023), "The Effect of Audit Firm Internal Inspections on Auditor Effort and Financial Reporting Quality," *The Accounting Review*, 98(5), pp.1-29.
- Blanco, B., P. Coram, S. Dhole, and P. Kent(2021), "How Do Auditors Respond to Low Annual Report Readabi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40(3), 106769.
- Boritz, J. E., L. Hayes, and L. M. Timoshenko (2016), "Determinants of the Readability of SOX 404 Reports," *Journal of Emerging Technologies in Accounting*, 13(2), pp.145-168.
- Bradbury, M. E.(1992), "Voluntary Disclosure of Financial Segment Data: New Zealand Evidence," *Accounting and Finance*, 32(1), pp.15-26.
- Callen, J. L., M. Khan, and H. Lu(2013), "Accounting Quality, Stock Price Delay, and Future Stock Return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30(1), pp.269-295.
- Carcello, J. V., C. Hollingsworth, and S. A. Mastrolia (2011), "The Effect of PCAOB Inspections on Big 4 Audit Quality," *Research in Accounting Regulation*, 23(2), pp.85-96.
- Cho, M., J. Hyeon, T. Jung, and W. J. Lee(2022), "Audit Pricing of Hard-to-Read Annual Reports," *Asia-Pacific Journal of Accounting & Economics*, 29(2), pp.547-572.
- DeFond, M. L. and C. S. Lennox(2017), "Do PCAOB Inspections Improve the Quality of Internal Control Audi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55(3), pp.591-627.
- Flesch, R.(1948), "A New Readability Yardstick,"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32(3), pp. 221-233.
- Gunning, R.(1952), *Technique of clear writing*. N.Y.: McGraw-Hill.
- Gunny, K. A., and T. C. Zhang(2013), "PCAOB Inspection Reports and Audit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32(2), pp. 136-160.
- Hussin, N., M. F. Md Salleh, A. Ahmad, and M. M. Rahmat(2023), "The Association Between Audit Firm Attributes and Key Audit Matters Readability," *Asian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8(4), pp.322-333.
- Kothari, S. P., A. J. Leone, and C. E. Wasley(2005), "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 Measur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9, pp.163-197.
- Krishnan, J., J. Krishnan, and H. Song(2017), "PCAOB International Inspections and Audit Quality," *The Accounting Review*, 92(5), pp.143-166.
- Küster, S.(2024), "The Determinants of Linguistic Features in Key Audit Matters: Empirical

- Evidence from Europe,” *International Journal of Auditing*, pp.1-33.
- Lawrence, A.(2013), “Individual Investors and Financial Disclosur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6(1), pp.130-147.
- Lennox, C. S. and X. Wu(2018), “A Review of the Archival Literature on Audit Partners,” *Accounting Horizons*, 32(2), pp.1-35.
- Li, F.(2008), “Annual Report Readability, Current Earnings, and Earnings Persistenc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5(2-3), pp. 221-247.
- Loughran, T. and B. McDonald(2014), “Measuring Readability in Financial Disclosures,” *Journal of Finance*, 69(4), pp. 643-1671.
- McNamara, D. S., A. C. Graesser, P. M. McCarthy, and Z. Cai(2014), *Automated evaluation of text and discourse with Coh-Metrix*,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ng, S. Y., R. Moroney, and X. Xiao(2022), “How Do Key Audit Matter Characteristics Combine to Impact Financial Statement Understandability?,” *Accounting & Finance*, 62(1), pp.805-835.
- PricewaterhouseCoopers(PwC)(2023). Audit quality report. <https://www.pwc.com/us/en/services/trust-solutions/library/pdfs/pwc-2023-audit-quality-report.pdf>
- Rogers, J. L., C. M. Schrand, and S. L. Zechman (2014), “Do Managers Tacitly Collude to Withhold Industry-Wide Bad News?,” *Chicago Booth Research Paper*, (13-12).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1998), *A Plain English Handbook: How to Create Clear SEC Disclosure Documents*. Retrieved from: SEC Office of Investor Education and Assistance <https://www.sec.gov/pdf/handbook.pdf>.
- Seebeck, A.(2024), “Back to Where It Started?—Do Expanded Auditor’s Reports Become Sticky, Generic and Boilerplate Over Time?,” *International Journal of Auditing*, pp.1-26.
- Smith, K. W.(2023), “Tell Me More: A Content Analysis of Expanded Auditor Reporting in the United Kingdom,”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108, 101456.
- Velte, P.(2018), “Does Gender Diversity in the Audit Committee Influence Key Audit Matters’ Readability in the Audit Report? UK Evidenc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25(5), pp.748-755.
- Watts, R. L. and J. L. Zimmerman(1983), “Agency Problems, Auditing, and the Theory of the Firm: Some Evidence,” *The Journal of Law & Economics*, 26(3), pp.613-633.
- You, H. and X. J. Zhang(2009), “Financial Reporting Complexity and Investor Underreaction to 10-K Information,”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14, pp.559-586.
- Zeng, Y., J. H. Zhang, J. Zhang, and M. Zhang(2021), “Key Audit Matters Reports in China: Their Descriptions and Implications of Audit Quality,” *Accounting Horizons*, 35(2), pp.167-192.

- 저자 윤용석은 현재 한남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및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여 경영학 석사 및 박사를 취득하고, 박사 학위 취득 이후에도 동 대학에서 연구교수로 일하였다. 주요연구분야는 공시정보와 회계감사 등이다.
- 저자 김현아는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회계 전공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삼일회계법인과 한국증권금융에서 근무하였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경영학박사(회계)를 취득하였으며, 주요연구분야는 기업지배구조, 회계감사 및 조세회피 등이다.